

「朝鮮學報」第201輯 別刷
平成 18 年 10 月 刊
(2006)

후기 중세 한국어의 {-애}에 대하여

—단어결합론의 관점에서—

趙 義 成

후기 중세 한국어의 {-애}에 대하여

—단어결합론의 관점에서—

趙 義 成

【要旨】本稿は、中期朝鮮語の {-애} が文においていかなる意味で現れるかを研究したものである。用例は『釈譜詳節』および『月印釈譜』の初刊本から収集し、収集した用例全てについて分析を行なった。分析は単語結合論に基づき、以下の諸点に着目して行なった。

- (1) {-애} 形体言の種類は何か
- (2) 単語結合において {-애} 形体言を従属させる主導語は何か
- (3) 主導語が {-애} 以外に要求する従属語があるか
- (4) {-애} を他の格形態に置き換えることができるか
- (5) {-애} に該当する部分が底経でどのように現れるか

この結果、中期朝鮮語の {-애} の意味を31種類に分類し、それと併せて {-애} の観点からいくつかの動詞分類も試みた。

また、意味記述に先立ち {-애} の形態とアクセントについても簡単に触れ、最後に現代朝鮮語の {-애} との関係についても簡潔に言及した。

1. 들어가기

1.1. 목적

본고는 후기 중세 한국어(이하 '중세어' 라 부름), 특히 15세기 한국어에 있어서 {-애}가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실현되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세어의 {-애}는 현대 한국어(이하 '현대어' 라 부름)의 {-애}로 이어지는 형태인데 그 의미 실현 양상이 현대어와 꼭 같지는 않다. 본고는 통사론적 관점에서 {-애}를 분석하면서 그 의미 실현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1.2. 분석 대상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는 [-애]는 ‘-애, -에, -예’ 세 가지 형태와 그것들에 ‘-ㄴ~ㄴ, -도, -사’가 붙은 형태들이다.⁽³⁾ 다만 단어의 구성이 확실하지 않은 ‘이에, 그에, 더에’와 ‘예, 게, 데’는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또 ‘-ㅅ’이 붙은 [-옛]과 ‘-드로개’ 등 용언 어형에 붙은 [-애]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용례는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초간본에서 수집하여 분석했다.⁽⁴⁾ 분석 대상이 된 용례수는 총 2960개이다. 단,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다른 권이나 다른 문헌의 용례를 제시했다.⁽⁵⁾

1.3. 분석 방법

[-애]의 분석은 단어결합론에 의거해서 실시했다. [-애]형을 취하는 체언(이하 ‘[-애]형 체언’이라 부름)은 문장 속에서 다른 단어나 단어결합에 문법적으로 종속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애]형 체언을 종속시키는 주도어의 종류에 착안하면서 분석하는 것을 기본축으로 삼고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애]의 사용과 그 의미를 밝힌다.⁽⁶⁾

1.4. 선행 연구

중세어의 [-애]에 관한 논고는 이형태의 차이점을 논한 것이 눈에 띄며 [-애]의 의미 실현에 관해 깊이 고찰한 논고는 드물다. 예를 들어 洪允杓(1969)에서는 ‘處格’의 의미를 ‘處所, 時間, 方向, 原因, 比較’의 다섯 가지로, 朴貞淑(1972)에서는 ‘處格’을 ‘處所格, 時間格, 向格, 原因格, 比較格, 共同格, 出格, 條件格’의 여덟 가지로, 安秉禧·李玼鎬(1990;1991)에서는 ‘처격조사의 기능’을 ‘공간적 범위(처소), 時間, 原因, 比較, 指向點’의 다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러한 구분이 [-애]의 모든 의미를 망라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또 각각 의미가 실현되는 조건도 분명치 않다. 그 한편 李賢熙(1994)는 중세어 구문을 분석하면서 격의 출현 양상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데 [-애]에 관한 기술이 적지 않아 아주 시사적이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중세어 [-애]에 관한 연구는 의미 구분과 의미 실현 조건에 관해 자세한 논고가 매우 드문 것이 실정이다.

2. [-애]형 체언

2.1. [-애]의 형태

[-애]의 이형태로는 ‘-애, -에, -예’ 세 가지가 있다. ‘-애’는 끝 음절 모음이 양모음인 체언에 붙고 ‘-에’는 끝 음절 모음이 음모음인 체언에 붙으며 ‘-예’는 모음 ‘ㅣ’로 끝나는 체언에 붙는다고 설명되어 왔다. 이번에 수집한 용례에서도 대부분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세 가지 이형태가 나타났지만 이에 어긋난 용례가 몇 개 있었다.

(ㄱ) 모음 ‘ㅣ’로 끝나는 체언에 ‘-애’가 붙은 용례가 월인석보에 4개 있었다. 모두 권 10에 나타나며 ‘머리에’라는 단어이다.

(1) 龍王을 흐 모미오 세 머리에 그리고 <ws10:118a6>

(ㄴ) 끝 음절 모음이 양모음인 체언에 ‘-에’가 붙은 용례가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 각각 1개, 총 2개 나타났다.⁽⁸⁾ 둘 다 현실 한자음에 이끌린 것으로 추측된다.

(2) 城門(성문)에 <ss24:21b7>, 三根(삼근)에 <ws8:24b2>

(ㄷ) 끝 음절 모음이 음모음인 체언에 ‘-애’가 붙은 용례가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 각각 1개, 총 2개 나타났다.

(3) 舍衛國(상위국)에 <ss6:23b2>, 竹林國(득림국)에 <ws8:93b4>

(ㄹ) 어간이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예’가 붙은 용례가 22개 있었다.⁽⁹⁾ 그 중 1개는 고유어 ‘치마’에 붙은 용례이며 나머지는 ‘趣’로 끝나는 한자어에 붙은 용례이다. 후자는 현실 한자음의 영향으로 추측된다.⁽¹⁰⁾

(4) 치마예 <ws10:24b1>, 惡趣(악충)에 <ss9:12b6>

2.2. [-애]형 체언의 악센트

이 연구에서는 주로 영인본을 사용해서 텍스트를 관찰했는데 영인본은 인쇄 상태가 결코 좋지 않으며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글자 판별이 어려울 때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방점을 논하는 것은 적지 않은 위험성을 내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기할 만한 몇 가지 사항에 관해 그 예를 드는 데 그치고자 한다.

[-애] 뒤에 ‘-는, -도’와 같은 다른 어미가 붙어서 [-애]가 거성 사이에 위치할 때 고유어에 붙은 [-애]는 (5a)와 같이 이른바 去聲不連⁽¹¹⁾에 따라 평성으로 나타난다. 한편, 같은 조건이라도 한자어에 붙은 [-애]는 (5b)와 같이 去聲不連⁽¹¹⁾과 상관 없이 거성으로 나타나는데 (5c)처럼 한자어에서 [-애]가 평성으로 나타나는 예가 2개 있었다.

- (5) a. 나·라해·도 <ss24:25b2>
- b. 五百世(·용·빅·셩)·예·도 <ws2:12a3>
- c. 外(·외)예·는 <ss13:62a3>, 十方世界(·씩방·셩·갱)예·도 <ws1:52a6>

또 [-애]가 어말에 위치할 때 이른바 語末平聲交替⁽¹²⁾로 [-애]가 평성으로 나타나는 예가 있었다.

- (6) 겨·스렌 <ws1:26b3>, 그·르세 <ws2:51b4>, 녀·르멘 <ws1:26b3>, ·므
 레 <ws2:29a2> <ws2:55a7> <ws10:119a6>

1음절 거성 어간 체언 중에는 [-애]형을 취하면서 어간의 악센트가 평성으로 바뀌는 것이 있다. 이번 용례에서 수집된 예로서는 다음 (7)과 같은 단어들이 있었다.

- (7) 값, 값, 곧, 콩, 곧, 귀, 글, 값, 깃, 날, 논, 눈(目), 덜, 몸, 못, 뭉, 발, 뜯,
 뽕, 손(手), 쌀, 앞, 옆, 입, 텃

이들 중에는 어간이 거성을 유지하고 있는 용례가 소수나마 있었다.

‘자해’의 용례 94개 중 4개는 어간이 거성을 유지하고 있다(<ss9:21b5>, <ws7:63a2>, <ws8:40a3>, <ws9:40a2>). 또 ‘바래’의 용례 8개 중 1개는 어간이 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1개 용례는 ‘손바래’라는 형태로 나타난다(<ws2:59b5>).

2.3. [-애]형 체언의 종류

[-애]형 체언의 용례 2960개를 종류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³⁾

【표1】[-애]형 체언의 종류

장소명사	956개	32.30%	용언의 체언형 ⁽¹⁴⁾	72개	2.43%
위치명사	505개	17.06%	단체명사	24개	0.81%
추상명사	489개	16.52%	사람명사	19개	0.64%
시간명사	419개	14.16%	동물명사	7개	0.24%
구체명사	233개	7.87%	의존명사	4개	0.14%
신체명사	150개	5.07%	의문대명사	2개	0.07%
수량명사	80개	2.70%	총계	2960개	100.01%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장소명사와 위치명사 합쳐서 1461개(49.3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서 [-애]가 어떤 처소를 표시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추상명사, 시간명사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체언의 [-애]형도 적지 않다는 사실에서 [-애]가 구체적인 처소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을 표시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용례수는 적었지만 동물명사와 사람명사에 [-애]가 붙은 예가 있었던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사람명사에 붙은 [-애]는 해당 인물이 동작의 객체가 아닌 경우에 쓰인다.

- (8) 多百千億那由他佛에 니르리 보습는다 ㅎ샤미 <ws18:55b7>

의문대명사에 붙은 2개 용례는 모두 ‘므숙’에 붙은 것이었다.

3. {-애}의 의미 분류

{-애}의 의미를 분류하는 데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에 착안했다.

- (ㄱ) {-애}형 체언은 어떤 종류인가.
- (ㄴ) 단어결합에서 {-애}형 체언을 종속시키는 주도어가 무엇인가.
- (ㄷ) {-애}형 체언이 소속하는 해당 단어결합에서 주도어가 {-애} 이외에 다른 종속어를 요구할 수 있는가.
- (ㄹ) {-애}가 다른 격형태로 代置가 가능한가. 즉 {-애}형 체언이 나타내는 의미를 다른 형태로도 나타낼 수 있는가.⁽¹⁵⁾
- (ㅁ) {-애}에 해당되는 부분이 底經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즉 {-애}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언어사실에 의거하여 어휘-문법적 관점에서 분류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구분된 의미들은 미리 설정한 구분이 아니라 {-애}를 분석한 결과로 구분된 것들이다. 또 {-애}의 의미 구분에 따라 ‘~동사’와 같이 동사가 분류되어 있는데 이 동사 분류 역시 {-애}를 분석한 결과 귀납적으로 추출된 분류들이다.⁽¹⁶⁾

3.1. 격으로 인정되는 {-애}의 의미

3.1.1. 대상적 의미

여기서 대상이란 넓은 의미에서의 객체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동작에 대한 직접적인 객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객체도 포함된다. {-애}가 대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주도어가 어휘-문법적 특성으로 인해 {-애}형 체언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애}형 체언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특정 동사 부류를 추출할 수 있다. 주도어가 {-애}형 체언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도어와 {-애}형 체언 사이의 관계는 긴밀하다.

3.1.1.1. 동작의 대상

① {-애}형 체언이 ‘固執^ㄱ’, ‘貪着^ㄴ’ 등 대상을 향한 심리적 태도를

가리키는 동사나 ‘施^ㄱ’, ‘禮數^ㄴ’ 등 대상을 향한 구체적 태도를 가리키는 동사(이를 합쳐서 ‘태도동사’라 부르기로 함)와 어울릴 때, {-애}는 태도의 동작이 미치는 대상, 즉 ‘태도적 대상’을 나타낸다. {-애}형 체언이 지시하는 것은 처소성이 없으며 장소명사, 위치명사의 {-애}형의 예는 적다.

- (9) a. 衆生들히 種種 欲애 기피 貪着^ㄴ 주를 아라 <ss13:55b6>
- b. 부텃 바래 禮數^ㄴ 습고 <ss13:11b1>

용례 중에는 아래 (10a, b)와 같이 주도어가 단어결합으로 된 것도 있다. 또 (10c)는 동작적인 명사를 주도어로 하는 특이한 용례인데 이 {-애} 역시 동작의 대상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10) a. 讀誦애 專히 호물 아디 못 함 <ws17:75a6>
- b. 大法大行애 모스물 즐기디 아디 하니라 <ws13:5b1>
- c. 常不輕比丘 | 업시움 업슬씨 四衆애 長常 절이러시니 <ws17:76a3>

이 단어결합에서 일부의 {-애}는 {-를}로 대체될 수 있다.

- (11) a. 濟度^ㄱ신 功德을 어루 이긋여 <ws序:9a4>
- b. 迦葉이 如來를 恭敬^ㄴ스 불씨 <ss23:40a5>

단어결합의 예는 아래와 같다.

제 性에 거슬쓰-, 說法애 法^ㄱ-, 男人애 兼^ㄴ-, 恨 고대 固執^ㄱ-, 四衆애 恭敬^ㄴ-, 三寶애 歸依^ㄴ-, 저근 이레 迷惑^ㄴ-, 부텃 法애 發心^ㄴ-, 苦行애 벽-, 正法애 順^ㄴ-, 얼굴 잇는 類애 施^ㄱ-, 바래 禮數^ㄴ-, 塵勞애 應^ㄴ-, 經애 疑心^ㄴ-, 恨 體애 이긋-, 미혹호매 罅^ㄴ-, 외오매 專主^ㄴ-, 五欲애 著^ㄴ-, 큰 法애 參預^ㄴ-, 두 法애 攄-, 色身애 貪着^ㄴ-,

西方에 合掌하-, 일후에 惑하-,

② 처소성이 있는 체언의 {-애}형이 ‘뵈-', ‘비취-', ‘쁘리-(包攝)’, ‘侍衛하-', ‘圍繞하-' 등 처소에 작용하는 동작을 가리키는 동사(이를 ‘처소 작용동사’라 부르기로 함)와 어울릴 때, {-애}는 동작이 미치는 대상으로서의 처소, 즉 ‘처소적 대상’을 나타낸다. 이 단어결합에서 {-애}가 나타내는 의미는 (13)과 같이 {-를}로도 나타낼 수 있다.

(12) 더 큰 구루미 三千大千國土에 너비 ㄷㄷㅎ 나라 <ws13:48a6>

(13) 初禪三天은 네 天下를 두피 잇고 <ws1:34b6>

용례 23개 중 21개는 {-애}형 체언이 처소성이 있는 장소명사, 위치명사, 구체명사, 신체명사이었으며, 추상명사는 2개뿐이었다. 그 2개는 ‘諸法에 비취-', ‘無明에 쁘리-' 처럼 비유적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처소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단어결합의 예는 아래와 같다.

사해 ㄷ-, 宮殿에 비취-, 無明에 쁘리-, 네 모해 侍衛하-, 左右에 圍繞하-

③ ‘道理’, ‘喻說’ 등 추상적 개념을 가리키는 체언의 {-애}형이 ‘불기-', ‘알-', ‘行하-' 등 타동사와 결합되면 {-애}가 동작에 대한 대상을 나타낸다.

(14) a. 大迦葉 등이 喻說에 안라 부터 正道를 得하야 <ws13:58a1>

b. 또 諸法에 다 불겨 <ws13:44a4>

c. 네 가짓 正ㅎ 道理에 브즈러니 行ㅎ 씨니 <ws7:43b2>

이때 동작은 {-애}형 체언이 지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14a) 같으면 ‘喻說’의 내용이 동작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 {-애}의 의미는 ‘내용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용례가 5개밖에 없기 때문에 동사 유형을 한정하기가 어려우나 태도동사와 같이 대상을 직접 향한 동작이 아니라 대상을 가지고 주체가 내적 또는 정신적 활동을 이루는 동사인 것처럼 보인다.

이 유형의 단어결합에서 {-애}는 {-를}로 대치가 가능하다.

(15) 大迦葉들히 喻說을 안스 받 부터 正道를 得하야 <法3:55a3>

3.1.1.2. 관계의 대상

④ {-애}형 체언이 ‘근하-' 등 두 대상의 관계성을 가리키는 용언(이를 ‘관계용언’이라 부르기로 함)과 어울릴 때 {-애}는 그 관계를 맺는 대상을 나타낸다.

(16) 特은 ㄴ뵈 쁘리에 ㅅ로 다를 씨라 <ss6:7a6>

이 단어결합에서 {-애}는 다른 형태로 대치가 가능하다. 그 양상은 관계용언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경우 {-와}로 대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간혹 {-이}, {-에서}로 대치된다. 예를 들어 ‘근하-' 일 경우에는 {-와}, {-이}, {-이}가 가능하며 ‘다르-'에서는 {-와}, {-에서}가 가능하다.

(17) a. 城이며 지비며 羅網이 다 七寶로 이러 이쇼미 또 西方 極樂世界와 ㄴㅎ야 <ss9:11a3>

b. ㄷㅎ 相이 ㅅ자 부터와 다르디 아니 ㅎ고 <ws8:36b4>

c. 智慧 根源 性체와 ㅅ자 이서 <ws2:55a4>

d. 稱은 ㅅ자 씨니 德의 實이 일흠과 ㅅ자 씨라 <ws11:20b6>

(18) a. 양궤익 식식하샤미 獅子 | ㅅ트시며 <ws2:57a3>

b. ㅎ마 주굴 ㅅ라미어니 當時로 사라 이신들 ㅅ주에서 다르리잇가 <ss24:29a1>

단어결합의 예는 아래와 같다.

香을神通에 가질비-, 圓敎에 各別하-, 가온되섯구메 關하-, 功德에
근하-, 느릿 느릿에 다르-, 道理에 맞당하-, 三根에 맞-, 諸塵에 어울-

3.1.1.3. 비교의 대상

⑤ [-애]형 체언이 ‘더으-’, ‘늘-’ 과 어울리면서 [-애]가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는 예가 2개 있었다.

(19) 이제 陛下 | 道理는 伏羲에 더으시고 德은 堯舜에 느르샤되 <ws2:70a6>

이 [-애]는 [-애서], [-로서]로 대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더으-’, ‘늘-’ 뿐만 아니라 갖가지 형용사가 주도어가 될 수 있다.⁽¹⁷⁾

(20) a. 맛글 ㅁ샤물 時節 일티 아니 하샤미 潮音이시니 이 世間音에서 더으샤 주리라 <ss21:16a5>

b. 觀音 힝더기 妙音에서 다르디 아니 하시니 能히 妙로써 너브실 셴 <ss21:16a1>

3.1.2. 상황-대상적 의미

상황-대상적 의미는 상황적 의미와 대상적 의미의 혼효이다(상황적 의미에 대해서는 3.1.3. 참조). 상황-대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애]는 그것이 상황어적인 의미를 나타내면서도 주도어가 어휘-문법적 특성으로 인해 [-애]형 체언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애]형 체언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특정 용언 부류의 추출이 가능하다. 또 주도어가 [-애]형 체언을 요구하기 때문에 [-애]형 체언과 주도어의 관계는 긴밀하다.

3.1.2.1. 고정점

⑥ [-애]형 체언이 ‘앉-’ 등 주체가 어떤 대상에 부착하거나 고정되는

동작을 가리키는 자동사(이를 ‘부착동사’라 부르기로 함)를 주도어로 하여 단어결합을 이룰 때 [-애]는 주체가 부착하거나 고정되는 곳, 즉 ‘부착점’을 나타낸다. 여기서 [-애]는 다른 격형태로 대치될 가능성이 낮다.

(21) 金床에 迦葉이 앉고 <ws7:20a1>

이 유형의 단어결합의 예는 아래와 같다.

獄에 가도이-, 師子床에 걸앉-, 變易生死에 걸이-, 蓮花中에 結加趺坐하-, 더러부메 굽슬-, 짜해 그울(轉), 바르래 놓-, 座에 날-, 風輪에 담기-, 모매 당-, 짜해 두피-, 짜해 디(伏), 權에 머굴위-, 二乘에 屬하-, 모매 묻-(附着), 짜해 바키-, 모매 범글-, 法에 븐둥기이-, 人趣에 붙-, 짜해 뜨(浮), 짜해 브드티-, 左右에 서-, 뭇 고래 숨-, 平床에 앉-, 짜해 업테-, 짜해 업더디-, ㅁ세 지뵈-, 世界에 퍼-, 東土에 퍼디-, 未來에 낫-, 殿에 들이-, 初禪天에 띄-, ㅁ레 싸디-, ㅁ레 줌(沈), 나라해 츠(滿)

⑦ [-애]형 체언이 ‘놓-’ 등 객체를 어떤 처소에 첨가하거나 고정시키는 동작을 가리키는 타동사(이를 ‘첨가동사’라 부르기로 함)를 주도어로 하여 단어결합을 이룰 때 [-애]는 객체를 첨가하거나 고정시키는 곳, 즉 ‘첨가점’을 나타낸다. 여기서 [-애]는 다른 격형태로 대치될 가능성이 낮다.

(22) 더 부뵈 像을 링 ㅁ라 조흔 座에 便安히 노츄고 <ss9:22b4>

이 단어결합에서는 동작의 대상이 [-를]로도 [-로]도로 나타날 수 있다.⁽¹⁸⁾

(23) a. 香水를 짜해 색리고 <ws13:12a4>

b. 香水로 짜해 색료된 <ws13:14a7>

수집된 용례 중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이 [-로]로 나타난 단어결합의 예

는 아래와 같다.

寶衣로 모매 감-, 물로 머리에 붓-, 珍寶妙物로 娑婆世界에 빙-, 향기 르므로 모매 브르-, 欄干階砌에 七寶로 꾸미-, 金으로 사해 실-, 香水로 사해 쓰리-, 갑시 萬이 쓰니로 모매 莊嚴호-

[-애]형 체언이 '일우' 등 생산동사를 주도어로 할 때도 [-애]가 첨가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동작의 직접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를]이 [-로]로 대체할 수 있는 점이 첨가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 (24) a. 깊 네거리에 塔 이르스 반 <ss23:58b3>
- b. 그 幢 여뵈 모해 百寶로 일우 고 <ws13:14a7>

주도어가 첨가동사인 경우 그 동작이 대상을 비교적 좁은 곳에 고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애]형 체언은 구체명사가 많은 반면, 주도어가 생산동사인 경우 객체를 생산하는 곳이 주체가 동작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애]형 체언은 장소명사가 많다.

다음과 같은 예는 주도어가 단어결합인 예이다.

- (25) 므스물 흔 고대 자바 뫼디 아니 호야 <ws7:45a5>

'잡-'은 첨가동사가 아니지만 '므스'와 연결되면서 '고정시키다'라는 뜻을 획득하여 첨가동사화되었다. 이때 '흔 고대'는 단독으로 '잡-'과 어울리기가 어려워 '므스물 잡-' 전체와 어울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첨가동사, 생산동사를 주도어로 하는 단어결합의 예는 아래와 같다.

【첨가동사】獄애 가도-, 모매 감-(卷), 棺애 넣-, 菩提樹下애 놓-, 드르헤 누이-, 깊 ㄱ애 느리-, 가스매 다히-, 그르세 담-, 五十二位에 더호-, 正흔 보매 두-, 獅子座애 두르-, 空中에 드리우-, 緣애 마초-, 七覺支애 마초호-, 모매 무티-, 南郊애 묻-(埋), 사해 뵈-, 香樓애 브티-,

모매 莊嚴호-, 白馬애 신-, 泮혜 안치-, 니마해 엮-, (므스물) 흔 고대 잡-, 菩提樹애 물 주-, 世界애 法을 피-, 瓶 ㄱ 소배 ㄱ초-, 그르메에 들-, 머리에 붓-, 모매 브르-, 므레 띄오-, 그르세 꾸미-, 사해 실-, 사해 쓰리-

【생산동사】프서리에 아드를 낳-, 閻浮提애 佛塔을 세-, 사해 精舍 이르-, 一一微塵分中에 無量供養海雲을 짓-, 모매 千燈을 췌-

3.1.2.2. 이동의 종점

⑧ [-애]형 체언이 '가-' 등 주체의 이동을 가리키는 자동사(이를 '이동동사'라 부르기로 함)를 주도어로 하여 단어결합을 이룰 때, 또는 '니를-', '다든-' 등 주체의 도달을 가리키는 자동사(이를 '도달동사'⁽²⁰⁾라 부르기로 함)를 주도어로 하여 단어결합을 이룰 때, [-애]는 주체의 이동 동작의 종점, 즉 '도달처'를 나타낸다. [-애]형 체언은 구체적인 처소를 가리키는 체언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체언일 수도 있다. [-애]는 (27)과 같이 [-로]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 (26) a. 世尊이 象頭山애 가샤 <ss6:1a2>
- b. 毘동을 ㅌ샤 梵摩羅國애 니르르시니 <ws8:85a5>
- c. 저근 이를 즐겨 空애 즈마 寂애 갈션 <ws13:5b1>

- (27) 즉자히 니러 竹園으로 오더니 <ss6:12b3>

또 이 단어결합에는 [-로셔]형, [-애셔]형 체언이나 '머리셔'와 같이 출발처를 나타내는 단어가 의무적인 구성소로 참여할 수 있다.

- (28) a. 須達이 玉舍城으로 서 舍衛國애 올 싸 싯 길 혜 <ss6:23a6>
- b. 用애 서 體애 드러 가 미 門이 나드 듯 홀 췌 <ws8:49b7>
- c. 閻浮提애 머리 셔 오 실 췌 <ss23:29a5>

'니를-'의 부사형 '니르리'는 후치사처럼 쓰이는데 이때 [-애]는 '도달처'라기보다 말하자면 '범위의 종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9) 如來로서 世尊에 니르리 열 가짓 號ㅣ 시니 <ss9:3a4>

이동동사, 도달동사를 주도어로 하는 단어결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동동사】象頭山에 가-, 雞足山에 거러든-, 더 ㅁ새 건나-, 四方에 건-(步), 더녁 ㅁ새 건나가-, 뜰헤 나⁽²²⁾-(出, 生), 智地에 낫-(進), 道에 나사가-, 城門에 내든-, 精舍에 니-, 虛空에 느라가-/느라오-, 虛空에 느라오르-, ㅈ해 느리-, 舍衛國에 도라가-/도라오-, 녀느 나라해 들-(巡), 地獄에 들-(入), 城에 드러가-, 惡趣에 디-(陷), 塵勞에 됴-(沈), 흔 고대 못-(集), 惡道에 떠디-, 모던 길헤 떠러디-, 虛空에 소사오르-, 五道에 쓰디-(陷), 城門에 迎逢ㅎ-, 世間에 오-, 妙覺에 오르-, 다른 地位에 읊-, ㅈ해 처디-(滴), 果報에 타나-(乘生), 더레 行幸ㅎ-, 곳 사시에 흐르-

【도달동사】梵摩羅國에 니를-, 涅槃에 다든-, 六千報에 밋-, 佛道에 通達ㅎ-, 大乘에 通ㅎ-

㉑ [-애]형 체언이 ‘보내-’ 등 객체의 이송을 가리키는 타동사(이를 ‘이송동사’라 부르기로 함)를 주도어로 하여 단어결합을 이룰 때 [-애]는 객체 이송의 종점, 즉 ‘이송처’를 나타낸다.

(30) 西天에 使者 보내시니 <ws2:47b3>

이동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유형의 단어결합에서도 [-애]는 객체 이송의 방향을 나타내는 [-로]로 대치가 가능하다.

(31) 조춘 중으란 雞雀精舍로 보내오 <ss24:34b7>

이송동사가 아닌 동사가 ‘-어다가’ 형을 취하며 [-애]와 어울린 예가 7개 있었다. 이것도 객체의 이송 도달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주도어는 ‘가져다가’, ‘긋어다가’의 두 종류였다.

(32) a. 너를 올흔녁 웃니를 주노니 天上에 가져다가 塔 일어 供養하라 <ss23:7b5>

b. ㅁ스초로 ㅁ야 무덥 서리에 긋어다가 두리라 <ws9:35f4>

이송동사를 주도어로 하는 단어결합의 예는 아래와 같다.

더 ㅁ새 건내-, ㅁ새 건내부치-, 石槨에 드리-(入), 가마에 드리티-, 하늘해 되시-, 拘尸城 안해 되술-, 길헤 되호-, 大闕에 보내-, 王宮에 브리-, 閻浮提에 드러가-, 虛空에 빙-, 根塵에 一切色身法을 現ㅎ-

다음 (33)은 주도어가 이송동사이긴 하지만 어휘적 의미에서 ‘이송’의 뜻이 사라지면서 [-애]의 의미도 바뀐 예이다. 이와 같은 단어결합에서 [-애]는 ‘동작의 대상’의 의미에 가깝다.

(33) 더 ㅁ들히 一切有情에 慈悲心을 내야 <ws9:54b2>

3.1.2.3. 거리 계측의 종점

㉒ [-애]가 ‘갓갓-’과 어울리면 거리 계측의 종점을 나타낸다.⁽²³⁾ 수집된 용례 3개는 모두 추상명사의 [-애]형이었는데 이것은 추상적인 거리 계측의 종점이라 할 수 있다. ‘거리 계측의 종점’의 의미는 위의 ‘이동의 종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 이 의미는 (35)와 같이 [-애서]로도 실현되는데 이 경우는 기점적인 의미, 즉 계측의 ‘기준점’일 것이다.

(34) 네 住흔 ㅈ히 佛慧에 갓갓보니 슬퍼 헤아려 보라 <ws14:80b5>

(35) 蜀에서 ㅁ이 갓갓보니라 <ws2:50b6>

3.1.2.4. 이동의 기점

㉓ [-애]형 체언이 ‘버서나-’ 등 주체가 어떤 처소에서 멀어져 가는 동작을 가리키는 자동사(이를 ‘이탈동사’라 부르기로 함)를 주도어로 하여 단어결합을 이룰 때, [-애]는 이탈 동작의 기점, 즉 ‘이탈처’를 나타낸다.

용례 총 33 개 중 추상명사의 [-애]형이 24 개로 가장 많았다.

(36) 이를 아느니는 世間애 버서난 사르미라 <ss23:15a4>

‘이탈처’는 [-를], [-에서], [-로서]로도 실현될 수 있다.

(37) a. 一切 苦難을 버서나고 <ws9:6a2>

b. 이 經엿 量에서 너문 數 | 다 곧흐니라 <ws18:27b7>

c. 므스되 놀라아 三昧로서 나아 보니 <ss23:39b7>

이탈동사를 주도어로 하는 단어결합의 예는 아래와 같다.

胎에 나(脫), 量에 넘-, 數에 다나(超), 菩提心에 뜨르-, 世間애 버서
나, 無學애 여회-, 阿耨多羅三藐三菩提에 退轉ㅎ-

[-애]가 ‘나들-’, ‘나머 들-’ 과 어울려 이동 동작의 출발점과 도달점을 동시에 나타내는 예가 1 개씩 총 2 개 있다. [-애]의 대치 가능성은 낮지만 아래 (38b)와 같이 [-를]로 실현된 예가 드물게 보인다.

(38) a. 菩薩은 塵勞애 나들어시느 <ws13:17a7>

b. 三朝를 나머 드러 든니는 榮華 | 로다 <杜詩 23:6b4>

⑫ [-애]형 체언이 ‘싸혀-/싸혀-’ 등 객체를 어떤 처소에서 제거하는 동작을 가리키는 타동사(이를 ‘제거동사’라 부르기로 함)를 주도어로 하여 단어결합을 이룰 때, [-애]는 객체를 제거하는 동작의 기점, 즉 ‘제거처’를 나타낸다. 동사는 ‘싸혀-/싸혀-’가 6개, ‘내-’가 2개였다.

(39) 有情들 홀 魔 그르레 내야 <ws9:19a6>

3.1.2.5. 이동 장소

⑬ [-애]가 ‘건내-’, ‘건내뛰-’, ‘빼-’, ‘스뭇-’ 등 뛰어넘거나 뚫는 동작을 가리키는 동사(이를 ‘통과동사’라 부르기로 함)와 어울릴 때 [-애]는 ‘통과처’를 나타낸다.

(40) a. 正法을 니르샤 二乘애 머리 건내뛰샤 <ws17:26a1>

b. 暘 光애 빼여 내 올흐 너브로 들어늘 <ss23:27a6>

이 단어결합에서는 동작의 대상이 [-를]로 실현된 예도 있다. 이것은 통과 동작에 대해 처소가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41) a. 아홉 큰 劫을 건내뛰여 成佛하시니라 <ws1:52b1>

b. 暘 光明을 빼시니이다 <月曲 14>

통과동사를 주도어로 하는 단어결합의 예는 아래와 같다.

煩惱 바르래 건내-, 情애 건내뛰-, 法行애 스뭇-, 竝리에 빼-

⑭ [-애]형 체언이 ‘노니-’, ‘듣니-’ 등 돌아다니는 동작을 가리키는 동사(왕래동사)⁽²⁴⁾의 종속어가 되면 [-애]는 돌아다니는 처소, 즉, ‘왕래처’를 나타낸다. 이 단어결합에서는 [-애]가 다른 격형태로 대치될 가능성이 낮다.

(42) a. ㅈ해 떠 虛空애 거르샤되 <ws2:37b7>

b. 業을 지서 生을 受ㅎ야 다섯 길혜 輪廻ㅎ며 <ws9:7a1>

(42a)는 앞에 ‘ㅈ해 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작의 주체가 이미 ‘虛空’에 있고 그 상태에서 걷는 동작을 이루기 때문에 [-애]는 ‘도달처’로 볼 수 없다. (42b)는 동작의 주체가 天上界·人間界·畜生界·餓鬼界·地獄界라는 五道 속을 두루 왔다 갔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애]는 ‘도달처’가 아니다.⁽²⁵⁾

이 유형의 단어결합의 예는 다음과 같다. 주도어에는 ‘-니-’를 가진 동사가 많은 것이 ⁽²⁶⁾눈길을 끈다.

虛空애 걷-(步), 逍遙애 노니-(遊), 虛空애 느라든니-, 諸國애 든니-, 色心안해 迷호-, 다섯 길헤 輪廻호-, 五道애 흐르니-

또 [-애]가 ‘이동 경로’를 나타낸다고 보이는 예가 1개 있다.

(43) 길헤 가며 須達이 舍利弗 더브러 무로되 <ss6:22b8>

이 예는 [-애]가 이동 동작이 이루어지는 처소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왕래동사를 주도어로 하는 단어결합과 유사하지만 ‘가-’가 ‘돌아다니는 동작’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별도로 제시하기로 한다. 그런데 유사한 예가 따로 없어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3.1.2.6. 언어활동의 상대로서의 처소

⑮ 단체명사 등의 [-애]형이 ‘출승호-’, ‘묻-’, ‘빌-’ 등 언어활동에 관련된 동사와 어울려 단어결합을 이룰 때 [-애]는 언어활동의 상대로서의 처소를 나타낸다.

(44) a. 그 저기 六師 | 나라해 出승호되 <ss6:27b5>

b. 阿育왕이 나라해 무로되 <ss24:18b6>

c. 病호야 누버셔 虛空애 비로되 <ss24:32a6>

수집된 용례는 9개이며 [-애]형 체언으로는 단체명사 ‘나랏’이 6개, 위치명사 ‘(大闕)얏’과 ‘(閻浮提)內’가 각각 1개, ‘虛空’이 1개였다. 위치명사는 앞에 오는 체언이 둘 다 단체명사이며 ‘虛空’은 그저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체명사적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애]형 체언은 단체명사 또는 그것에 준한 것이다. ⁽²⁷⁾

3.1.2.7. 존재 장소

⑯ [-애]형 체언이 ‘곳-’, ‘머물-’, ‘살-’, ‘잇-’ 등 주체의 존재나 체류를 가리키는 용언(이를 ‘존재용언’이라 부르기로 함)을 주도어로 하여 단어결합을 이룰 때, [-애]는 ‘주체의 존재처’를 나타낸다.

(45) 또 世尊이 舍衛國애 걸실 찌기 <ss24:45a1>

이 유형의 단어결합의 예는 아래와 같다.

二乘애 걸-(滯), 兜率天애 거시-, 世間애 곳-, 空中애 머물-, 사르티 무레 사니-, 甘蔗園애 살-, 震旦國애 잇-, 나라해 없-, 娑婆世界애 住호-, 十方國土애 現在호-

[-애]가 ‘이셔’와 연결된 용례 중에는 ‘이셔’가 후치사처럼 쓰이는 것이 있다. (46b)는 [-애 이셔]가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는 예로 매우 흥미롭다.

(46) a. 여러 가짓 받며 빨본 것이 舌根애 이셔 다 變호야 도흔 마시 드의 야 <ss19:20a8>

b. 이툇 나래 나라해 이셔 도즈기 자취 바다 가얏 <ws1:6b3>

[-애]와 ‘잇-’, ‘없-’이 어울릴 때, [-애]형 체언과 용언 사이에 [-이]형 체언이 오면서 [-애]가 전체를 나타내고 [-이]가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이때 ‘[-애]형 체언 — [-이]형 체언 — 용언’이라는 어순은 고정되어 있다. ⁽²⁸⁾ 어순은 단어결합 차원이 아니라 문장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애]의 사용은 비단어결합적인 것이라 하겠다. ⁽²⁹⁾

(47) 如來 거르샤매 세 가짓 이리 잇느니 <ws2:37b5>

⑰ 처소를 나타내는 체언의 [-애]형이 체언과 어울려 [-애]가 어울린 체

언이 가리키는 대상이 존재하는 처소, ‘대상의 존재처’를 나타내는 예들이 있다. [-애]가 체언과 어울리기 때문에 이 의미는 상황-규정적이다.

- (48) a. 나랏 內에 王人病 곧 흔 사르 물 어더 드려다가 <ss24:50a6>
- b. 모든 中에 흔 菩薩摩訶薩 일후미 常不輕이러라 <ss9:29a6>
- c. 娑婆世界內에 三千大千 나라 히니 <ws1:21b3>

3.1.2.8. 용도

㉘ [-애]형 체언이 ‘쓰-’, ‘브리-’와 연결되면 [-애]는 동작에 대한 용도를 나타낸다. 용례는 4개이며 ‘쓰-’가 3개, ‘브리-’가 1개였다.

- (49) a. 俱夷 묻즈브샤디 “므스게 쓰시리?” <ws1:10b2>
- b. 象兵은 마르쳐 싸호매 브리는 고키리오 <ws1:27b4>

3.1.2.9. 도구-수단

㉙ ‘값’, ‘兜羅綿’, ‘방하’, ‘살’, ‘香鑪’ 등 구체명사나 ‘光明’ 등 물리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체언이 [-애]형을 취하면서 의지동사와 어울릴 때, [-애]가 동작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를 나타낸다.

- (50) a. 香水에 시스 바 兜羅綿에 쁘리 스 바 <ss23:37b4>
- b. 本來 블 근 光明에 諸佛도 비취 시 며 <ws2:30a6>

또 ‘뜯-’, ‘보-’ 등 신체를 사용하는 동작을 가리키는 타동사가 ‘손’, ‘마슴’ 등 신체명사의 [-애]형을 종속어로 할 경우도 [-애]가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 경우 ‘뜯-’에는 ‘귀예’, ‘보-’에는 ‘누네’, ‘잡-’에는 ‘소네’가 종속되는 등 동사와 [-애]형 체언 사이에는 상관성이 있다.

- (51) a. 내 일후물 귀예 흔 번 드려 도 <ss9:7a7>
- b. 이베 도 흔 차반 먹고 저 흔 며 <ws1:32a2>

도구를 나타내는 [-애]는 [-로]로 대치가 가능하다.⁽³¹⁾

- (52) a. 姝女 | 하늘 기보 로 太子를 쁘려 안 스 바 <ws2:43b1>
- b. 샹 넛 귀 로 소리 를 드 로 되 되 <ss19:10b3>

㉚ 같은 의지동사와의 어울림이라도 [-애]형 체언이 ‘恭敬心’, ‘神通力’, ‘彈指’ 등 구체물이 아닌 개념이나 활동을 가리키는 체언일 경우, [-애]는 ‘수단’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53) a. 世尊 神通力에 이 말 니르 스 스 스 無量壽佛이 虛空에 되 시 니 <ws8:4a3>
- b. 흔 ष 까 흔 彈指에 能 히 六震을 뎡 워 <ws18:10b3>

(53b) ‘彈指’와 같이 동작을 가리키는 체언이 [-애]형을 취할 때, [-애]의 의미는 후술될 ‘환경’의 의미(즉 ‘손가락을 칠 때’)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단을 나타내는 [-애]도 도구를 나타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로 대치가 가능하다.

- (54) 즉자히 神通力으로 樓 우 희 느 라 올 아 <ss6:3a1>

도구-수단을 나타내는 [-애]는 주도어가 ‘의지동사’라는 특정 부류의 동사로 한정되어 있긴 하되 그 범위는 상당히 넓어 그 한정성은 약하다. 이것은 주도어에 한정이 없는 상황적 의미의 경우에 가깝다. 그만큼 이들의 의미는 상황-대상적 의미 중에도 상황적 의미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3.1.3. 상황적 의미

[-애]가 상황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주도어가 [-애]형 체언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대상적 의미와 상황-대상적 의미에서의 경우와 달리, 상황적 의미의 [-애]는 주도어의 종류가 특별히 한정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도어의 어휘-문법적인 특성이 {-애}의 의미를 확정하는 데 별반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애}의 의미는 {-애}형 체언의 종류, 어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확정될 수 있으며 그 조건도 대상적 의미의 경우에 비하여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3.1.3.1. 분량의 기준

㉑ 수량명사의 {-애}형이 수량명사를 주도어로 하여 단어결합을 이룰 때, {-애}는 분량의 기준을 나타낸다. 체언을 주도어로 하기 때문에 {-애}의 의미는 상황-규정적 의미라 할 수 있다. 주도어가 되는 체언은 ‘-음’형을 취하거나 부사 ‘各各’을 수반한다. 또 분수를 나타내는 (56)과 같은 예도 이 유형의 단어결합으로 볼 수 있다.

(55) a. 舍衛國에 을 싣싣 길헤 二十里에 흐 亭^음을 짓게 흐야 <ss6:23a7>

b. 四十方에 各各 三世를 及초 혜어 一百二十世 일면 二疊이오 <ss19:12b4>

(56) 隨喜^흔 功德에 근디 몬 호미 百分 千分 百千萬億分에 흐나토 몬 미 츠리며 <ws17:49b5>

3.1.3.2. 원인

㉒ ‘불’, ‘살’, ‘吉慶’, 등 처소성이 없는 구체물이나 추상 개념을 가리키는 체언이 {-애}형을 취하면서 용언과 어울릴 때 {-애}가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을 나타낸다.

(57) a. 本來 하신 吉慶에 地獄도 뵈며 <ws2:30a3>

b. 無明入 대가리에 뵈일씩 <ws14:7b1>

c. 五百群賊이 흐 사래 다 디니 <ws10:26b5>

d. 흐 구름 비에 大千이 너비 흐워 호문 <ws13:46a1>

주도어가 되는 용언에는 한정이 없는데 수집된 용례는 무의지동사, 피동사, 형용사였다. ‘원인’의 의미는 ‘도구-수단’의 의미와 동전 앞뒤의 관

계에 있다. 즉 주도어가 의지동사일 경우에는 ‘도구-수단’의 의미가 되고 주도어가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인이 된다.

‘원인’의 {-애}는 {-로}로 대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58) 前生^엣 이리 因緣으로 後生에 도흐 몸 드외어나 <ws1:12a2>

3.1.3.3. 자격

㉓ {-애}가 자격을 나타내는 용례가 3개 있었다.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본다는 뜻에서 ‘대리적 자격’이라 이름을 붙이기로 한다. 수집한 용례는 {-애}에 대한 주도어가 다 타동사였다.

(59) a. 다른 사^르물 값새 보내니 <ss24:51a6>

b. 네 미스미 모딜씩 나를 金翅鳥애 보느나라 <ws7:48a7>

이 두 용례에서는 대상어인 {-를}형 체언 뒤에 {-애}가 오는 어순인데, {-애}가 자격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 어순으로 고정된다고 생각된다. 이 송동사를 주도어로 하는 단어결합에서 {-애}는 ‘도달처’를 나타내지만 (59a)는 처소성 없는 체언이 {-애}형을 취하기 때문에 {-애}가 ‘도달처’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㉔ 수량명사의 {-애}형이 자격을 나타내는 예가 13개 있었다. 이 경우 {-애}는 대상을 분할되는 수효의 측면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수효적 자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60b)와 같이 주도어가 ‘논호-’, ‘굴히-’ 등 분할을 가리키는 동사일 경우에는 자격의 의미가 더 뚜렷하다.

(60) a. 슌가^라굴 펴아 八萬四千 가^르래 放光케 호고 <ss24:24b5>

b. 七覺支는 覺애 다든는 이를 닐구^베 논호아 닐은 마^리니 <ws2:37a4>

3.1.3.4. 시간

㉕ 시간명사가 [-애]형을 취할 때, [-애]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나 상태가 존재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시간명사의 용례 총 419개 중 [-애]가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불과 12개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³²⁾

- (61) a. 如來太子入時節에 나를 겨집 사모시니 <ss6:4a5>
- b. 모미 겨스렌 달고 녀르멘 초고 <ws1:26b3>

위치명사 중 ‘丙’, ‘스시’, ‘中’ 의 [-애]형은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위치명사 앞에 오는 단어는 시간명사, 용언 관형형, 동작성이 있는 추상명사 등이 오는 경향이 있다.

- (62) a. 如來 오닐 跋 中에 無餘涅槃에 들리라 <ss13:34a7>
- b. 피엿던 불홀 구필 쓰시에 迦毗羅國에 가아 <ss6:2a2>
- c. 衆生을 漸說 中에 頓益을 得고 <ws14:65b6>

3.1.3.5. 장소

㉖ 처소를 가리키는 체언이 [-애]형을 취할 때 [-애]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상태가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낸다. 이것 역시 주도어의 종류가 한정되지 않는다. (64)와 같이 이 [-애]는 [-애서]로 대치될 수 있다.

- (63) a. 閻浮提에 十二億 사르 들 濟渡 호고 <ss23:32b8>
- b. 오직 西天 나라들해 흰 象이 하나라 <ws2:31b2>
- (64) 그 저기 波波國에서 부터 滅度 호시다 듣고 <ss23:52a6>

장소의 의미를 나타내는 [-애]에서도 위치명사가 [-애]형을 취한다. ‘東方’, ‘뿡’, ‘얹’, ‘外’ 처럼 구체적 공간을 가리키는 위치명사 이외에도 ‘丙’, ‘스시’, ‘中’ 등 시간을 나타내는 [-애]에서 쓰인 위치명사도 보인다. 다만 위치명사 앞에 오는 단어는 주로 장소명사, 단체명사, 사람명사, 구체명사 등 구체적인 물체를 가리키는 체언이고 반대로 용언 관형형이

오지 않는 등 시간을 나타내는 [-애]의 경우와 양상을 달리한다.

- (65) a. 眞 스시에 고본 곳들히 프고 <ws8:12a2>
- b. 阿育王이 窟 丙에 沙門 二萬을 상네 供養 호거늘 <ss24:21a4>
- c. 부테 天人 太衆 中에 이 法 니르실 저기 <ws14:38b7>

[-애]형 체언이 동작성을 지닌 명사와 어울려서 동작의 장소를 나타내는 예가 1개 있었다.

- (66) 여러 東山에 遊戲時에 香과 <ws17:65b3>

‘시간’, ‘장소’ 라는 의미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고 아래 (67)처럼 양쪽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용례도 적지 않다.

- (67) 흐다가 내 아랫 누에 이 經을 受持 讀誦 호야 <ws17:90b1>

3.1.3.6. 환경

㉗ 추상명사 등 추상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체언이 [-애]형을 취하면서 ‘-에 있어서’ 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은 [-애]는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상태가 놓이는 ‘환경’ 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68) a. 막스미 無常호들 보며 法에 나 업수물 불 씨라 <ws7:43a6>
- b. 기픈 禪定에 다 自在를 得 호야 <ws17:48a5>

‘환경’ 의 의미는 ‘시간’, ‘장소’ 의 의미에 인접해 있다고 추측되며 [-애]형 체언의 성격에 따라 시간적인 뉘앙스나 장소적인 뉘앙스를 수반한다. (68a)는 [-애]형 체언이 동작성을 지니지 않는 데 이때는 ‘~에 있어서’ 와 같이 장소적인 의미에 가깝다. (68b)는 [-애]형 체언이 동작성을 지니며 ‘~할 때’ 와 같은 시간적인 의미에 가깝다.

‘시간’, ‘장소’, ‘환경’을 나타내는 {-애}는 단어결합에서 종속어가 되면서 주도어와 어울리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특정 단어와 어울리지 않고 {-애} 뒤의 성분 전체와 관계를 맺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애}는 이미 단어결합을 구성한다고 보기 힘들다.

(69) 어엿브신 命終에 甘蔗氏 니스샤물 大瞿曇이 일우니이다 <ws1:3a1>

3.1.3.7. 화제의 범위

㉘ {-애}형 체언이 이후의 내용에 관해 그 화제의 범위, 즉 ‘-에 관해서’, ‘-에 있어서’란 의미를 나타낸다. ‘-에 있어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보아 ‘환경’의 의미와 파생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70) a. 燈明스 아드래 다몬 四天下를 領하다 니르샤몬 <ws14:15a1>
b. 衆生들히 色聲香味觸애 그 內에 五百煩惱 | 又 초 잇고 그 外에 쯔 五百煩惱 | 잇느니 <ws13:17b1>

{-애}형 체언의 종류는 장소명사, 추상명사, 사람명사 등 다양하다. {-애}형 체언이 놓이는 자리는 문장의 맨 앞, 내지는 주어 뒤이다. {-애}는 문장에서 그 이후 부분 전체와 관계를 맺으며 어느 특정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비단어결합적인 사용이다.

3.1.3.8. 인용 정보의 출처

㉙ ‘華嚴’과 같은 경전명이나 ‘글’, ‘닐움’, ‘말’, ‘法’, ‘喩說’ 등이 {-애}형을 취하고 그 뒤에 인용 정보가 기술될 때, {-애}는 그 인용 정보의 출처를 나타낸다. 이것 역시 ‘-에 있어서’란 뜻을 가진 것으로 보아 ‘환경’의 의미와 파생관계에 있다고 추정된다. 인용 정보를 가리키는 부분은 (71)과 같이 인용 종료를 표시하는 동사 ‘하-’가 있는 경우도 있고 (72)와 같이 그것이 없는 경우도 있다.

(71) a. 阿那婆達多是 東土스 마래 “熱惱 | 업다” 혼 마리니 <ss13:7b7>

b. 더 瞿曇의 닐오매 “起屍餓鬼 中에 나리라” 하더니 <ws9:36c1>
(72) a. 華嚴에 嚮香長者 | 이대 能히 天人龍鬼 甞는 香들 啜 (下略) <ws17:66b2>
b. 太微宮은 선빅 그레 하늘 皇帝스 南녘 宮 일후미라 <ws2:48b7>

인용 정보의 출처를 나타내는 {-애}는 특정 단어가 아니라 인용부 전체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단어결합을 이루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3.9. 순서

㉚ 수사의 {-애}형이 한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 앞에 와서 {-애}가 순서를 나타내는 예가 월인석보 권8에 48개 있다. 이 용례들은 모두 ‘-니’이 붙어서 주제화되어 있어 단어결합을 이루지 않는 이른바 ‘문장 부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73) 흐나내 내 成佛하야 나라해 地獄 餓鬼 畜生 일흠곳 이시면 乃終내 正覺 일우디 아니 호리이다 <ws8:59b7>

3.2. 격으로 인정되지 않는 {-애}

㉛ 두 개 이상의 체언을 들면서 {-애}가 병립을 나타내는 용례가 4개 있었다. 병립을 나타내는 {-애}는 다른 단어와의 격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체언을 병립적으로 나열할 기능만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74) 夷摩且羅 | 라 흠 켓거스 양지 드외니 흐머리에 네 ㄴ치오 <ss24:21b2>

4. 단독으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애}

단독으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애}는 3장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기로 한다.

4.1. 분석적 형식에 들어가는 {-애}

분석적 형식에 들어가는 {-애}는 앞뒤 단어들과 어울리면서 전체로 하나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문법화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³⁴⁾

- (75) a. 부데 舍衛國으로 오싹 길헤 머므르싹 지비라 <ss6:23b2>
- b. 모딘 罪를 지싹 므디예 내 일후를 드러 닛디 아니 햏야 <ss9:25b4>
- c. 부터 供養햏기 外에 년디 몬 쓰리니 <ss23:3b5>
- d. 햏 부터 일흠 兪홀 쑤네 이런 功德 도햏 利를 어드리오 <ss9:27a8>

4.2. 부사의 일부를 이루는 {-애}

{-애}가 특정 체언에 붙어 굳어져 전체로 하나의 부사로 구실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체언의 paradigm 을 이루지 않고 고정된 어형밖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체언으로 보기가 힘들다.

이번에 수집한 용례 중에는 ‘實엔’ 이 있었다. ‘實’은 ‘-로’를 제외하고 다른 격형태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로 하나의 부사로 인정할 수 있다.⁽³⁵⁾

4.3. 접속형의 일부를 이루는 {-애}

용언의 체언형 ‘-음/-음’이 {-애}형을 취하는 것 중에는 용언 접속형(연결형)으로 보아야 할 것들이 있다.

- (76) a. 菩薩이 頓니시며 셔 겨시며 안즈시며 누브사매 夫人이 아므라토
 아니 햏더시니 <ws2:26a5>
- b. 모매 도햏 옷 넙고져 호매 다 제 먹는 쁘드로 ㄷ외야 나누니라
 <ws1:32a3>

이와 같은 예에서 용언의 체언형은 용언이 단순히 체언화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여러 개 단어와 상관 관계를 맺으며 용언의 성질을 진하게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붙은 {-애}도 이미 체언의 격형태로 보기

가 어려워 전체를 하나의 접속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러한 {-애}의 특징은 {-애}의 앞 부분과 뒤 부분에서 동작의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³⁶⁾ 예를 들어 (76a)의 경우, 앞 부분의 주체는 ‘菩薩’, 뒤 부분의 주체는 ‘夫人’이다. (76b)처럼 문장에 주어와 명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작의 주체가 다름은 마찬가지다.

용언의 체언형에 {-애}가 붙은 접속형의 의미는 앞 부분과 뒤 부분의 관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76a)는 ‘누우시지만’과 같은 의미이며 (76b)는 ‘입고자 하니’와 같은 의미이다.

5. 마무리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중세어의 {-애}의 의미를 서른한 가지로 분류했다. {-애}가 나타내는 의미는 대상적 의미에서 상황적 의미까지 매우 다양하며 그 중에는 현대어의 {-애}가 가지지 않는 의미도 적지 않다.

격으로 구실하는 {-애}의 의미 서른 가지의 분포와 단어결합의 주도어가 되는 단어 종류, 단어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격 형태, {-애}의 대치 가능 여부 등을 일람표로 정리하여 이 글의 말미에 제시해 둔다(【표2】).

참고로 현대어와의 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본다. 대상적 의미, 상황-대상적 의미의 {-애}는 현대어와 유사한 점이 많으나, 동작의 대상 중 ‘처소적 대상’과 ‘내용적 대상’(3.1.1.1.②, ③), ‘이동의 기점’(3.1.2.4.), ‘이동 장소’(3.1.2.5.)는 현대어와 차이를 보여준다. 이들은 현대어에서 {-를}, {-에서}로 실현된다. 상황적 의미의 {-애}는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 경우 현대어에서 {-에서}가 된다. 또 ‘환경’(3.1.3.6.)과 그와 파생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화제의 범위’(3.1.3.7.), ‘인용 정보의 출처’(3.1.3.8.)는 ‘-에 있어서’, ‘-에 관해서’ 등 분석적 형식에 의해 표현된다. 그리고 ‘접속형의 일부를 이루는 {-애}’(4.3.)는 접속형 ‘-매’의 발달 과정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흥미롭다. 이와 같이 중세어 {-애}에 해당되는 것이 현대어에서 서로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바로 중세어 {-애}가 다양한 의미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³⁷⁾

이번 연구를 통해 드러난 앞으로의 과제도 적지 않다. 상황적 의미는 의미 실현의 조건이 모호한 점이 적지 않아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지 모

른다. 예를 들어 ‘장소’ (3.1.3.5.)로 구분한 것들 중에는 주도어 종류의 한정이 가능해 보이는 것이 있다.

(77) 六師의 무리 閻浮提에 그득호야 <ss6:27a6>

방법론에 관해서도 과제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애]의 의미 실현의 조건을 찾는 데 底經을 참조할 경우가 많았는데 이 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석보상절, 월인석보는 한국어로 된 산문이라고는 하지만 底經 언해의 영향이 있다는 의심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 실현의 조건이 모호한 경우에 底經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중세어 [-애]는 그 후 근대어를 거쳐 현대어 [-에]가 된다. 중세어 [-애]의 의미 실현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대어에 이르렀는가 하는 점도 매우 흥미로운 문제이다.

【附記】 본고는 2004년도 科学研究費補助金(若手研究(B))에 의한 연구 성과의 일부이다. 기초 작업에서 東京外國語大學 대학원생이었던 孫禎慧 씨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 東京外國語大學 南潤珍 선생님과 福岡大學 무라타 히로시[村田寛] 선생님께는 도움이 되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한다.

註

- (1) 한국어의 역사 구분은 李基文(1998)에 의거했다.
- (2) ‘-애/-에/-예’를 서로 이형태로 인정하여 이들을 합쳐서 [-애]로 표시한다. 다른 형태에 관해서도 이를 따라 ‘-롤/-를/-을/-을’은 [-롤], ‘-로/-로/-으로’는 [-로]와 같이 표시한다.
- (3) [-애]와 같은 기능을 가진다고 추측되는 것으로 [-이]가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志部(1990: 72)에 의하면 [-애]와 [-이]는 ① 양자 사이에 의미 용법상의 차이가 없고 ② 사용 구별은 원칙적으로 단어마다 정해져 있으며 ③ 사용 빈도는 [-애]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면서 [-애]와 [-이]의 사용 구분의 경향에 관해서는 ① 고유어의 경우 어간말 음절의 악센트가 평성(즉 저조)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취하고 거성이나 상성(즉 고조)이면 [-애]를 취하고 ② 한자어의 경우 어간말 악센트와 상관 없이 대부분이 [-애]를 취하지만 ③ 한자

어라도 단음절, 평성이며 사용 빈도가 높아 고유어화의 정도가 높다고 추측되는 것은 [-이]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술하고 있다. [-애]와 [-이], 그리고 [-이]와 [-시]의 상호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아주 흥미롭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미루기로 한다.

- (4) 석보상절은 권 6, 9, 13, 19, 23, 24에서, 월인석보는 권 1, 2, 7, 8, 9, 10, 13, 14, 17, 18에서 용례를 수집했다. 용례는 영인본을 이용해서 수집했으며 편면의 판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 자료를 이용해서 확인했다.
- (5) 출전은 석보상절을 ss, 월인석보를 ws로 표시하며, 그 다음에 권차, 쌍점에 이어서 장차, 앞뒤(a가 앞면, b가 뒷면), 행의 순서로 표시했다. <ws10:118a6>는 월인석보 권 10, 118장 앞면, 6행을 의미한다. 장차에서 ‘-二’, ‘-三’이 있는 경우에는 c, d, e, f의 순서로 앞뒤를 표시했다.

또 底經의 출전은 大正新脩大藏經에 의거했으며 <T9n262:52a11>와 같은 형식으로 출전을 표시했다. 이 예는 제9권, 경전 번호 262번, 52쪽 상단(a가 상단, b가 중단, c가 하단), 열한 번째 줄임을 나타낸다.

석보상절, 월인석보 이외의 문헌과 그 약호는 아래와 같다.

法華經諺解(法) 杜詩諺解(杜詩) 月印千江之曲(月曲)

- (6) 단어결합론에 대해서는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1954),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1980) 참조. 또 한국어 단어결합에 관해서는 趙義成(1997) 참조.
- (7) 단어결합에서 주축이 되어 다른 단어 형태를 문법적으로 자신에 종속시키는 단위를 주도적 구성소라 부르고, 주도적 구성소에 문법적으로 종속되는 단위를 종속적 구성소라 부른다. 예를 들어, ‘책을 읽-’이란 단어결합에선 ‘읽-’이 주도적 구성소, ‘책을’이 종속적 구성소이며 ‘역사에 관심이 있-’이란 단어결합에서는 ‘관심이 있-’이 주도적 구성소, ‘역사에’가 종속적 구성소이다. 많은 경우 각 구성소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흔히 이들을 ‘주도어’, ‘종속어’라 한다. 본고에서는 ‘관심이 있-’처럼 구성소가 단어가 아니라 단어결합일 경우에도 편의상 ‘주도어’, ‘종속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 (8) 월인석보 권 8의 99장과 102장에도 같은 예가 있지만(ㄹ예, 大海예), 이 부분은 원본이 결락되어 補修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을 피한다. 추측하건대 이것들은 보수시의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
- (9) ‘화예’ <ws2:33a2>는 ‘화’에 ‘-예’가 붙은 것인데 ‘화’의 마지막 /y/가 ‘예’의 첫머리 /y/와 중복되어 표기되지 않은 예이다. 이와 같은 예는 어간이 ‘ㅣ’로 끝나는 체언에 붙은 것으로 보았다.
- (10) 석보상절에서 한자어에 붙은 격어미의 모음조화에 관해서는 李浩權(2001: 72-81)에 자세한 논고가 있다.
- (11) “去聲은 三音節 내리 繼續되는 것을 忌避한다”(金完鎭 1963: 66). 즉 거성이 3음절 연속될 경우 중간에 있는 거성이 평성으로 바뀌는 현상을 이른다.
- (12) “去聲 語幹下の 語尾는 平聲으로” 나타나는 현상(金完鎭 1963: 70). 즉 어말

과 그 앞의 음절에서 거성이 2개 연속될 경우 어말의 거성이 평성으로 나타나는 현상. 최근의 중세어 악센트 연구에서는 ‘어말 평성화’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 (13) 체언의 분류는 野間秀樹(1990)에 의거하되 다음과 같은 점을 수정했다. 野間秀樹(1990)의 구분 중 ‘구체명사’와 ‘물질명사’를 하나로 묶어 ‘구체명사’로 다루었으며 ‘사항명사’, ‘추상명사’, ‘성질명사’, ‘활동명사’, ‘영위명사’를 하나로 묶어 ‘추상명사’로 다루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구체명사’와 ‘물질명사’, ‘사항명사’와 ‘추상명사’는 각각 가산/불가산의 대립인데 [-에]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가산/불가산이 [-에]의 의미 실현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성질명사’, ‘활동명사’, ‘영위명사’는 현대어에서 ‘-하다’가 붙어서 용언화될 수 있으며 ‘-하다’가 붙었을 때 그 단어가 요구하는 격형태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위의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중세어 명사들의 ‘-ㅎ-’ 후접 여부가 분명치 않을 경우가 있으며 또 ‘-ㅎ-’가 붙어 용언화된 경우에도 그것이 어떤 격형태를 요구하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량명사’에는 수사, 명수사도 포함시켰다.
- (14) 용언의 어형 중 체언적 기능을 가진 형태. 菅野裕臣(1988: 1022) 참조. 여기서 ‘-음/-음’ 형을 가리킨다.
- (15) 중세어에서는 문헌에 나타나는 용례만 가지고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 중 (ㄷ), (ㄹ)을 [-에]의 의미 구분을 위한 조건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대치에 관해 본고에서는 ‘대치할 수 있다’, ‘대치가 가능하다’와 같은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대치가 100%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대치된 용례를 문헌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뜻을 미리 밝혀 둔다.
- (16) 동사 분류에 있어서는 동일한 동사가 서로 다른 분류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동사가 속하는 단어결합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해당 동사의 어휘-문법적 의미가 서로 달라 그것이 요구하는 종속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 (17) 비교의 대상을 가리키는 체언이 사람명사일 경우 [-의계]로 나타나는 예도 있다.

須菩提 尼과 德과 한 사르니게 노플션 長老 | 라 흐니라 <ws13:3a4>

- (18) 이송동사(3.1.2.2. 참조)가 주도어일 경우에도 대상어가 [-로]로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가 2개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a) 버텨 길혜 金銀 琉璃 玻璃로 뫼호아 텅골오 <ws7:64a7>

(b) 種種 華香 瓔珞 幡蓋와 여러 가지 모매 莊嚴 具 珍寶 妙物로 다 娑婆 世界에 머리셔 비호니 <ws18:9a7>

(a)는 이송동사 ‘뫼호-’가 아니라 ‘텅골-’를 주도어로 보고 ‘金銀 琉璃 玻璃로’는 ‘텅골-’에 대해 도구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底經은 ‘四邊階道. 金銀琉璃頗類合成.’ <T12n366:347a2>으로 되어 있다. (b)는 底經에서 ‘以種種華香瓔珞幡蓋及諸嚴身之具珍寶妙物. 皆共遙散娑婆世界’

<T9n262:52a11-12>로 되어 있어 역시 도구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또 村田寬(2005: 15-16)에서는 ‘물애를 짜해 실-’과 같은 단어결합이 ‘물애로 짜홀 실-’과 같이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 (19) 앞으로 생산될 것을 가리키는 [-를]형 체언을 대상으로 하는 타동사. 菅野裕臣(1995: 14) 참조.
- (20) ‘이동동사’와 ‘도달동사’가 [-에]의 관점에서 구분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 (21) 菅野裕臣(1988: 1009) 참조. 체언이나 용언 직후에 붙는 부속적 단어로, 부사적인 것과 관형사적인 것이 있다. 현대어에서는 ‘관해서/관한’, ‘인해서/인한’과 같은 단어를 후치사로 부르고 있다.
- (22) 불교의 輪廻轉生 사상에서는 태어나는 것이 단지 세상에 출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몸을 옮긴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쓰인 ‘나(生)’는 이동동사로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나다 혼 마룬 사라 나다 혼 마리 아니라 다른 地位에 올마 가다 혼 쁘디라’ <ss6:36a6-7>란 기술에서 알 수 있으며 또 ‘等覺에서 金剛乾慧에 흥번 나면’ <ss6:36a5-6>처럼 ‘나’가 [-에서](출발처)와 [-에](도달처)를 함께 종속시키는 용례가 있어 언어사 실로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3) 이번에 수집한 용례 중에는 없었지만 ‘덜-’도 이 단어결합의 주도어가 된다. 이에 이루 惡道에 덜온 佛家에 나리라 <法4:163b9>
- (24) 野間秀樹(1993: 147) 참조. 현대어에서 처소를 가리키는 체언의 [-를]형을 취하여 그 체언이 가리키는 처소 속을 돌아다니는 것을 가리키는 동사.
- (25) 용례 중에는 아래와 같이 [-애]가 왕래처를 나타내는지 도달처를 나타내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예도 있다.
흐 흥정바지 아드리 出家호야 諸國에 두루 들니다가 <ss24:14b2>
다만 아들이 출가한 상태에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출발처를 나타내는 [-에서], [-로서] 등이 이 단어결합에 끼여 들어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고려하면 [-애]는 왕래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 (26) 李崇寧(1961; 1981: 274)에서는 ‘-니-’를 “持續相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하며 “행동의 持續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다.
- (27) 언어활동의 상대를 가리키는 체언은 많은 경우 사람명사이며 그 형태는 이른바 ‘여격’인 [-드려], [-애그에] 등이다.
- (28) 朴良圭(1975), 李賢熙(1994) 등에서 ‘잇-’과 관련된 구문으로 지적된 바 있다.
- (29) 단어결합론에서는 단어결합의 차원과 문장의 차원을 준별한다. 단어결합, 즉 주도어와 종속어의 어울림은 문장 형성과 상관 없이 주도어의 어휘-문법적 특성에 의해 미리 정해지는 어울림이다. 단어결합론에서 주도어를 서술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주도어’가 문장 차원에서 규정되는 성분인

‘서술어’와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그 한편 어순은 문장 차원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순 제약이 있는 단어들의 어울림은 단어결합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30) 동사 중에서 권유형과 명령형을 가질 수 있는 동사. 鈴木重幸(1972: 318), 菅野裕臣他(1988: 1040), 菅野裕臣(1995: 7) ‘意志用言’ 참조.

(31) 洪允杓(1969)에서는 신체명사의 [-애]형과 [-로]형에 관해, [-애]형의 경우는 “感覺 또는 精神動作을 行하는 主體”를 나타내고 “動作의 主體와 動作과의 關係가 매우 密接”하다고 하며 [-로]형의 경우는 “手段의 關係로서 맺어진 것”이라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32) 시간명사의 [-애]형이 ‘시간’ 이외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대상적 의미 또는 상황-대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들은 주도어의 종류에 의해 의미가 확정된다.

(33) ‘문장’의 정의는 쉽지가 않으나 여기서는 편의적으로 하나의 서술부를 가진 단위를 문장으로 보기로 한다. 서술부는 많은 경우 하나의 용언으로 나타나지만 ‘느라오르-’처럼 합성된 용언, 체언에 ‘-이-’가 붙은 형태도 서술부를 이룬다고 본다. 따라서 흔히 ‘절’이라 불리는 단위를 여기서는 ‘문장’으로 보기로 한다.

(34) 이와 같은 예 이외에도 앞에서 본 ‘-애 니르리’(3.1.2.2. 참조), ‘-애 이서’(3.1.2.7. 참조) 등도 분석적 형식의 일부를 이루는 [-애]에 가깝다.

(35) ‘환경’을 나타내는 [-애] 중에 ‘轉身에’, ‘最後身에’와 같은 단어도 이미 굳어진 어형으로 보아도 될지도 모른다.

(36) 앞뒤 주체가 같은 경우에도 접속형처럼 쓰이는 예도 있다.

諸佛이 授記하시며 付囑하시매 다 명바기 마니샤몬 <ws18:16b1>

이번 분석에서는 ‘부촉하심에 있어서’라는 ‘환경’의 의미로 구분했지만 ‘부촉하시는데’와 같이 접속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접속형의 일부를 이루는 [-애]가 ‘환경’의 의미와 상관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7) 그 한편 현대어에서 매매 가격을 나타내는 [-애](예를 들어 “시계를 만 원에 샀다.”)와 같은 의미는 이번엔 수집한 용례 중에 없었다.

영인본 등

“釋譜詳節 第六·九·十三·十九”, 한글학회(1991)
“注解 釋譜詳節[第23·24]”, 金英培(1972;1996), 一潮閣
“國學資料 第1輯 月印釋譜 <卷一, 二>”,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72;1995)
“月印釋譜 卷七”, 東國大學校 出版部(1981)
“月印釋譜 卷八”, 東國大學校 出版部(1981)
“역주 월인석보 제9·10”,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4)
“月印釋譜(十三·十四)(合本)”, 弘文閣(1984)
“역주 월인석보 제17·18”,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5)

“活字本 法華經諺解(二, 三, 四, 五, 六, 七)”, 弘文閣(1997)

『大正新脩大藏經』, 大正一切經刊行會(1927)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디지털 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renew/>

電子佛典協會 <http://w3.cbeta.org/>

大正新脩大藏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 <http://www.l.u-tokyo.ac.jp/~sat/>

참고문헌

(a) 한국어 문헌

고영근(1997) “개정판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김동소(2000) “석보상절 어휘 색인”,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金英培(1972;1996) “注解 釋譜詳節[第23·24]”, 一潮閣
金完鎮(1969) ‘形態部 聲調의 動搖에 對하여’, “西江大學 論文集” 第1輯
김승곤(1989) “우리말 토씨 연구”, 건국대학교출판부
나카니시 교코[中西恭子](2004) ‘중세조선어의 ‘여격표시’에 대하여: —15·16세기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7권 제4호
南廣祐(1997) “古語辭典”, 教學社
文獻研究會 編(1994) “釋譜詳節 文法形態 索引集”, 太學社
朴良圭(1972) ‘國語 處格에 대한 연구’, “國語研究” 27
朴良圭(1975) ‘所有와 所在’, “國語學” 3
朴貞淑(1972) ‘中世國語의 處格助詞攷’, “同大語文” 第二輯, 同德女大 國語國文學會
安秉禧·李玟鎬(1990;1991) “中世國語文法論”, 學研社
劉昌惇(1964;1987)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 出版部
李基文(1998) “新訂版 國語史概說”, 太學社
李崇寧(1961;1981) “中世國語文法(改訂增補版)”, 乙酉文化社
李賢熙(1994) “中世國語 構文研究”, 新丘文化社
李浩權(2001)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태학사
趙義成(1997) ‘현대한국어의 단어결합에 대하여’, “朝鮮學報” 第163輯
趙義成(2002) “月印釋譜(卷一)語彙索引”, 박이정
허웅(1975;199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 문화사
허웅, 이강로(1999) “주해 월인천강지곡상”, 신구문화사
洪允杓(1969) ‘十五世紀 國語의 格研究’, “國語研究” 21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I)”, 태학사

(b) 일본어 문헌

菅野裕臣 (1995) 「朝鮮語語彙のクラスをめぐって」, 『朝鮮文化研究』 2, 東京

大学朝鮮文化研究施設

- 菅野裕臣他(1988)『コスモス朝和辞典』, 白水社
- 言語学研究会編(1983)『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編)』, むぎ書房
- 河野六郎(1955)「朝鮮語」, 河野六郎(1979)所収
- 河野六郎(1979)『河野六郎著作集』第1巻, 平凡社
- 志部昭平(1987)「中期朝鮮語(3)——体言の曲用と語尾, 用言の活用——」, 『月刊基礎ハングル』10, 三修社
- 志部昭平(1990)『諺解三綱行實圖研究』, 全2巻, 汲古書院
- 須賀井義教(2003)「中期朝鮮語における対格——対格語尾の有無と文の階層構造, 単語結合——」, 『朝鮮学報』第187輯
- 鈴木重幸(1972)『日本語文法・形態論』, むぎ書房
- 趙義成(1994)「現代朝鮮語の-에서格について」, 『朝鮮学報』第150輯
- 趙義成(1996)「現代朝鮮語の-에格について」, 『第4回大阪・アジアスカラシッパ活動報告書』, (助大阪国際交流センター)
- 趙義成(2005)『初刊本『釋譜詳節』統合 KWIC 索引』
- 陳満理子(1996)「現代朝鮮語の-로格について——単語結合論の観点から——」, 『朝鮮学報』第160輯
- 仁田義雄編(1993)『日本語の格をめぐって』, くろしお出版
- 野間秀樹(1990)「朝鮮語の名詞分類——語彙論・文法論のために——」, 『朝鮮学報』第135輯(노마 히데키 [野間秀樹](2002) '한국어의 명사분류—어휘론·문법론을 위하여—',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대학사)
- 野間秀樹(1993)「現代朝鮮語の対格と動詞の統辞論」, 『言語研究Ⅲ』東京外国語大学語学研究所
- 村田寛(2005)「15世紀朝鮮語の対格について——単語結合論の観点から——」, 『朝鮮学報』第197輯

(c) 러시아어 문헌

-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1954)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Том II, Издательст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Москва
-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1980)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Том II,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Москва
- Холодович, А. А. (1954) Очерк граммати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дательство литературы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 Москва

(東京外国語大学専任講師)

[표2] 격으로 인정되는 [-에]의 의미 일람표

의 미		용례 수	종속어*1	주도어	대치 가능 형식	기타 특징	용례	현대어	
큰분류	중간 분류								작은 분류
대상적 의미	동작의 대상	① 태도적 대상	49	추상, 구체	태도동사	일부 [-를]	種種欲에 貪着호-		
		② 처소적 대상	23	장소, 위치	처소작용동사	[-를]	三千大千國土에 踞-	[-를]	
		③ 내용적 대상	5	추상	'알-' 등	[-를]	喻說에 알-	[-를]	
	④ 관계의 대상	48	추상, 구체	관계용언	[-와], [-에서], [-이]		느미 攄리에 다투-	[-와]	
	⑤ 비교의 대상	2	사람	'더으-', '늘-'	[-에서], [-로서]		伏羲에 더으-	[-보다]	
상황-대상적 의미	고정점	⑥ 부착점	163	장소, 구체	부착동사		金床에 앉-		
		⑦ 첨가점	139	장소, 구체	첨가동사		대상어 [-로]*6	조흔 座에 놓-	
	이동의 종점	⑧ 도달처	733	장소, 추상	이동/도달동사	[-로](방향)	출발처*7	象頭山에 가-	
		⑨ 이송처	36	장소, 위치	이송동사	[-로](방향)		西天에 使者 보내-	
	⑩ 거리 계측의 종점	3	추상	'갓잡'	[-에서](계측의 기점)		佛懸에 갓잡-		
	이동의 기점	⑪ 이탈처	33	추상, 구체	이탈동사	[-에서], [-로서], [-를]		世間에 버서나-	[-에서]
		⑫ 제거처	7	추상, 구체	제거동사			有情들 魔 그므레 내-	[-에서]
	이동 장소	⑬ 통과처	11	추상, 신체	통과동사	[-를]		햇 光에 晔-	[-를]
		⑭ 왕래처	32	장소, 위치	왕래동사			다섯 길헤 輪廻호-	[-를]
	⑮ 언어활동의 상대로서의 처소	9	단체, 위치	'출승호-' 등			나라해 出승호-		
	존재 처소	⑯ 주체의 존재처	298	장소, 위치	존재용언			舍衛國에 거시-	
		⑰ 대상의 존재처	101	위치, 장소	체언			모든 中에 흐 菩薩	
	⑱ 용도	4	의문대, 추상	'쁘-', '브리'			싸호매 브리-		
	도구 수단	⑲ 도구	93	신체, 추상*2	의지동사	[-로]		兜羅綿에 쁘리-	일부 [-로]
		⑳ 수단	6	추상	의지동사	[-로]		神通力에 이 말 니르-	[-로]
	㉑ 분량의 기준	17	수량, 위치	수량명사*5			二十里에 흐 亭숨음		
	㉒ 원인	15	추상, 구체	(한정 없음)	[-로]		하신 吉慶에 地獄도 뷔-		
	자격	㉓ 대리적 자격	3	추상, 동물	타동사			다른 사르 鬚 갑새 보내-	[-로]
		㉔ 수효적 자격	13	수량, 신체*3	(한정 없음)			龍王을 세 머리에 그리-	[-로]
	㉕ 시간	459	시간, 위치	(한정 없음)			겨스레 달-		
㉖ 장소	447	장소, 위치	(한정 없음)	[-에서]		閻浮提에 濟渡호-	[-에서]		
㉗ 환경	57	추상, 체언형	(한정 없음)			禪定에 自在를 得호-	[-에서]		
㉘ 화제의 범위	25	추상, 사람	—		위치 한정*8	燈明入 아드래(下略)	[-에 관해]		
㉙ 인용 정보의 출처	42	추상, 구체	—		위치 한정*9	華嚴에(경전 내용)	[-에서]		
㉚ 순서	48	수량*4	—		위치 한정*10	흐나헨(下略)	[-로]		

○ 숫자는 본문의 숫자에 대응함.

- *1 용례 중 많은 것 상위 두 종류를 표시함
- *2 추상명사는 총 24개이며 그 중 16개가 '쁘'임.
- *3 신체명사는 명수사로서 사용되어 있음.
- *4 '-ㄴ'을 수반함.
- *5 '-음', '춤' 등을 수반함.

- *6 대상어 [-를]을 [-로]로 대치가 가능함.
- *7 출발처를 나타내는 [-에서], [-로서]가 단어결합에 참여할 수 있음.
- *8 [-에]가 문장 첫머리 또는 주어 뒤에 음.
- *9 [-에]가 인용 정보를 가리키는 구 앞에 음.
- *10 [-에]가 문장 첫머리에 음.